

# 역사 뒀안길로 사라졌지만 화려한 로마문명의 숨은 바탕

## 조현종 박사의 고고학 산책

### 〈7〉피렌체에서 만난 에트루스카

비아 피렌체, 르네상스의 꽃, 천재들의 도시. 피렌체를 수식하는 언어들만 연재 들어도 어색하지 않다. 그만큼 피렌체라는 단어는 포용적이며 그 자체로 빛이 나기 때문이다. 알피치 단테와 페트라르카, 북카치오가 신이 세상의 전부이던 시대에 인간의 감성을 일깨우면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메디치, 갈릴레이,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같은 피렌체 천재들이 완성하였다. 말하자면 르네상스시대의 피렌체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들의 용광로였다.

피렌체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타마리아 노벨라 역을 거친다.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서 이름을 따온 이 기차역은 1934년 완성되었다. 역의 주변에는 피렌체의 모든 여행지를 연결하는 버스과 트램, 택시들의 정거장이 있다. 두오모나, 세뇨리아 광장 및 우피치 미술관, 레퍼블리칸 광장, 미켈란젤로 언덕, 산마르코 광장,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성당과 건축물, 박물관과 미술관, 교외의 아름다운 피에솔레까지도 갈 수 있다.

피렌체에는 크고 작은 성당을 비롯해서 박물관이라는 이름의 공간이 72개소를 넘는다. 어쩌면 도시 전체가 박물관인 오늘날의 피렌체는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 중에서도 두오모와 우피치 미술관, 아카데미 갤러리는 설사 예약이 되었다고 해도 입장은 물론 관람하기조차 어려움을 정도이다.

그럴 땐 시간을 바꿔보길 권한다. 여행이 그렇기는 하지만, 유명세에 밀려난 장소에서 정작으로 의외의 수확을 얻기도 하기 때문이다. 두오모에서 일이다.

두오모 입장권은 대성당과 요한 세례당, 그리고 오페라 뮤지엄 3곳이 묶여 있는데, 그러나 대성당과 세례당의 입장을 위해 서있는 줄은 언제나 길지만 하다. 대성당이 특히 그렇다.

그래서 찾은 두오모 오페라 뮤지엄! 입구가 좁아 박물관인지조차 열린 구별되지 않는 이곳은 1296년 두오모 대성당 건축을 위해 설립된 현장 사무실. 그러니까 감독관과 예술가, 작업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었다. 성당이 완성된 뒤에는 유지보수기관으로 쓰이다가, 1891년에 두오모와 세례당에서 귀중한 미술품을 옮겨와 전시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이곳에 가야 부르넬레스키가 직접 만든 쿠폴라 실물, 나무 도르래 등과 기베르티의 천국의 문, 도나텔로의 막달레나,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등 거장들의 명품들을 만날 수 있다. 사진으로 또는 손으로 직접 만져 윤나고 반질거리는 요한 세례당, 여러분의 천국의 문은 실제로 복제품이다.

아카데미 갤러리는 유명한 다비드가 있어 명소가 되었다. 1486년 미켈란젤로가 지금은 전시



왼쪽부터 여성의 토루소(베를로니아 출토, 기원전 7세기, 피렌체 국립고고학박물관 소장), 동심원장식토기(지름 12.6cm, 기원전 7세기 전반기, 피렌체국립고고학박물관 소장), 피렌체 돔의 목제모형(부르넬레스키 작, 두오모 오페라 뮤지엄 소장).



키메라(아레조 출토, 기원전 6세기, 피렌체 국립고고학 박물관 소장)



청동 장식부채(포플로니아 출토, 기원전 7세기 중후엽, 피렌체 국립고고학박물관 소장)

기원전 3세기경이 되면 에트루스카의 많은 문화와 심지어 역사조차도 정복자인 로마의 문화에서 명맥을 상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트루스카의 무덤과 내용, 벽화뿐만 아니라 에트루스카 의복, 종교관습, 건축문화는 로마에 의해 채택되었다

그리고 에트루스카들은 로마인이 되었다

관인 된 두오모 옆 오페라에서 제작하여 시뇨리아 광장에 세워졌지만, 1873년 지금의 장소로 옮겨왔다. 여기에서도 르네상스 최고의 걸작을 향한 줄서기는 상상을 불허한다. 관람시간은 러시아워를 피하고 사람들이 밀리는 시각에는 바로 옆 아누치아타 광장의 건너편, 국립고고학박물관을 찾은 일이다. 여기에 왕정과 공화정단계의 그 로마와 경쟁하며 성장하게 한 로마 이전의 에트루리아 문화가 있다.

나는 이 박물관을 통하여 처음으로 로마 이전의 에트루스카 문화를 만났다. 로마에 묻혀서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 문화의 실체는 명백하지 못하다. 그들은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에 걸쳐 밀라노에서 로마에 이르는 이태리 중부지역에서 살았다. 주로 광물자원의 개발과 공산품의 무역을 통해 번성하였으며, 내부의 도시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페니키아, 근동과 같은 현대 지중해 문명들과도 상품을 교환했다. 특히 생산된 철을 수출하고 이집트에서 온 상아, 발틱에서 온 호박, 그리스와 이오니아에서 온 도자기 등을 교환 받았다. 이러한 무역 관계는 에트루스카의 일상 생활과 예술에 문화적 영향을 끼쳤다.

박물관의 전시물은 초기 청동기문물에서부터 분묘, 특히 석실묘와 벽화묘, 무덤 장식, 등근살림집, 토기와 빗과 같은 생활용기를 통하여 에트루스카들의 생사관, 가족과 종교 등 문화전체를

다루었다. 특히 아레조에서 출토된 청동제 키메라는 기원전 5-4세기 에트루리아인들이 조각한 청동상이다. 이 조각은 그리스 신화의 불을 뿜는 괴물로 사자의 머리, 뱀의 꼬리, 등에 솟은 염소 머리 등으로부터 생성되었다. 에트루스카 미술의 가장 탁월한 자료이며 국립 피렌체 고고학박물관의 대표적인 스타이다.

기원전 3세기경이 되면 에트루스카의 많은 문화와 심지어 역사조차도 정복자인 로마의 문화에서 명맥을 상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트루스카의 무덤과 내용, 벽화뿐만 아니라 에트루스카 의복, 종교관습, 건축문화는 로마에 의해 채택되었다. 그리고 에트루스카들은 로마인이 되었다. 따져 보면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조현종은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과 학예연구실장, 국립광주박물관장을 역임하고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했다. 1992년부터 2016년까지 광주신 청동유적의 조사와 연구를 수행했고, 현재는 국제지식학회 편집위원, 광주고고학연구소 이사장으로 동아시아 문물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 초기도자문화연구' '저승지교학' '2,000년 전의 타임캡슐' '탐매' '풍족' 등 연구와 저작, 전시기획이 있다.



광주 최대 변화가! 최고 광고효과!  
광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전광판 광고 (신세계안과 옥탑)

DISPLAY  
광고문의  
신세계안과 1566-9988

01 광주 최고 유동인구 밀집지역 신세계백화점, U-Square, 광주종합버스터미널, e마트 등	02 광주 최대 광복대로에 위치 20차선 차량 정체 극심 지역, 57개 버스노선 경유지(광주 최대)
03 무등일보, 뉴스스 뉴스와 생활정보 편성, 높은 주목도!	04 두 개 (무진대로, 죽봉대로) 광복대로에 노출되는 광고효과 X2

1일 100회, 월 3,000회 노출!! (20초 광고 기준)

- ▶ 스크린 크기: 13.6m x 7.7m
- ▶ 해상도: LED풀컬러 국내 최고 화질
- ▶ 하루 18시간, 20구좌 상업 광고노출
- ▶ 광고노출 시점: 계약 즉시 가능

믿을 수 있는 그룹의 No.1 광고회사

SRB 미디어 그룹 **SRB에드** 문의 062) 510-4650